

영웅이 되고 싶어

영웅이
되고 싶어



풍산초 3학년 정하람

[소개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정하랑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유튜브, 게임, 노래듣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책을 그리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나 동물이
간혀있거나 묶여있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책의 제목은 '영웅이 되고 싶어' 입니다.

내용은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나 동물이 간혀있는 것을 보면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 지은이 | 정하랑

| 펴낸곳 | 풍산초등학교

| 발행일 | 2020년 10월 28일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정하랑과 풍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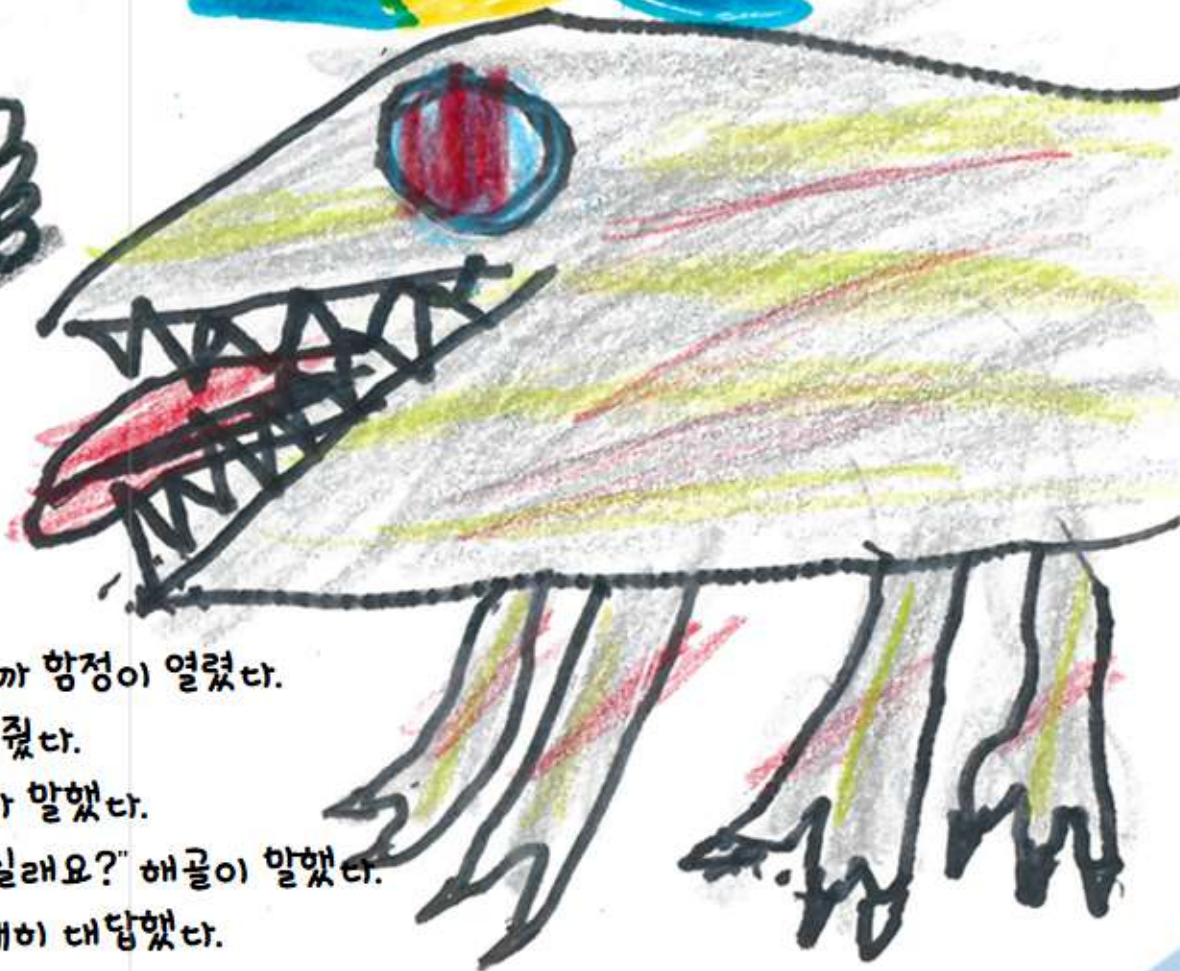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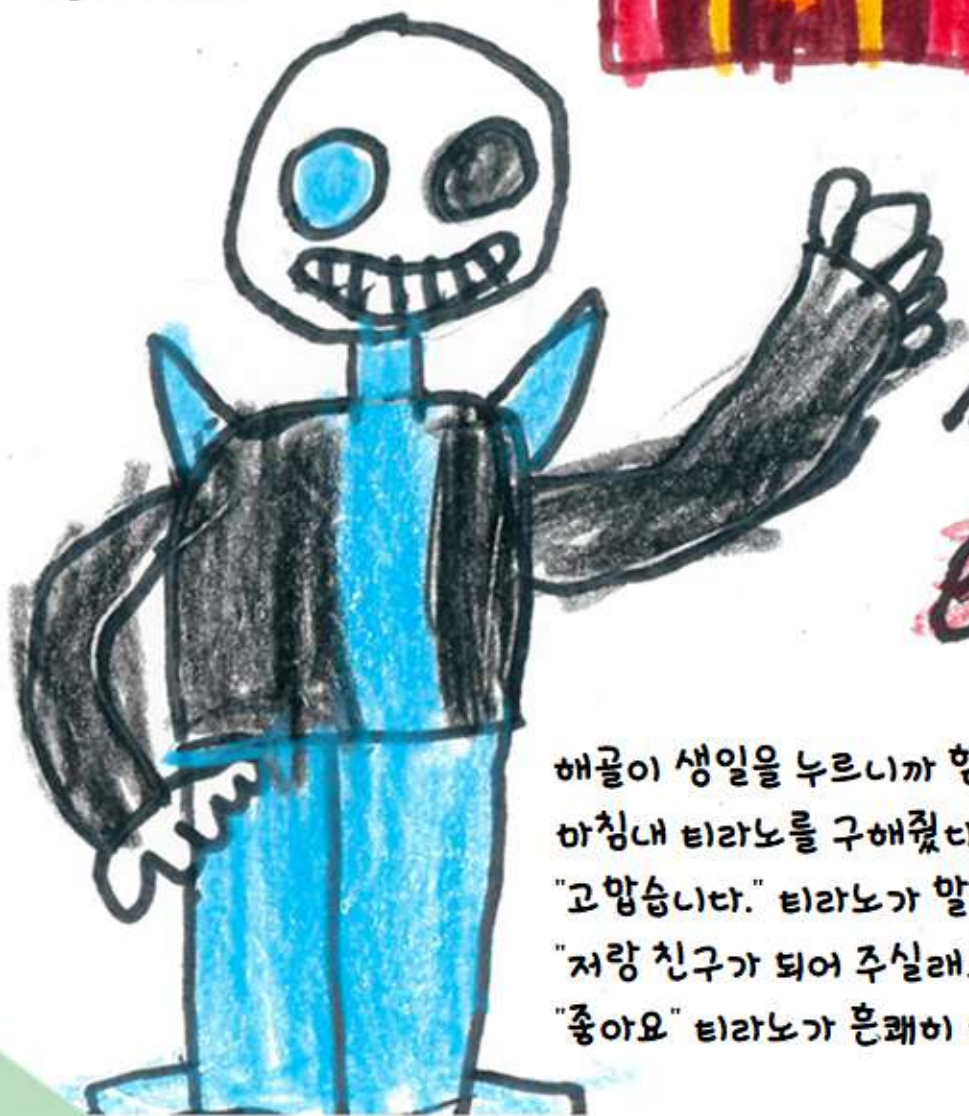


어느날 해골이 길을 가다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티라노가 함정에 갇혀있다.



"살려주세요~" 티라노가 말했다.
"앵? 누구세요?" 해골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전 티라노예요. 절 구해주세요.
근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요" 티라노가 말했다.

비밀번호가 무엇일까 생각하던
해골이 갑자기 물어봤다.
"생일이 몇월 몇일이세요..?"
티라노가 대답했다.
"1월 8일이예요"



해골이 생일을 누르니까 함정이 열렸다.
마침내 티라노를 구해줬다.
"고맙습니다." 티라노가 말했다.
"저랑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해골이 말했다.
"좋아요" 티라노가 흔쾌히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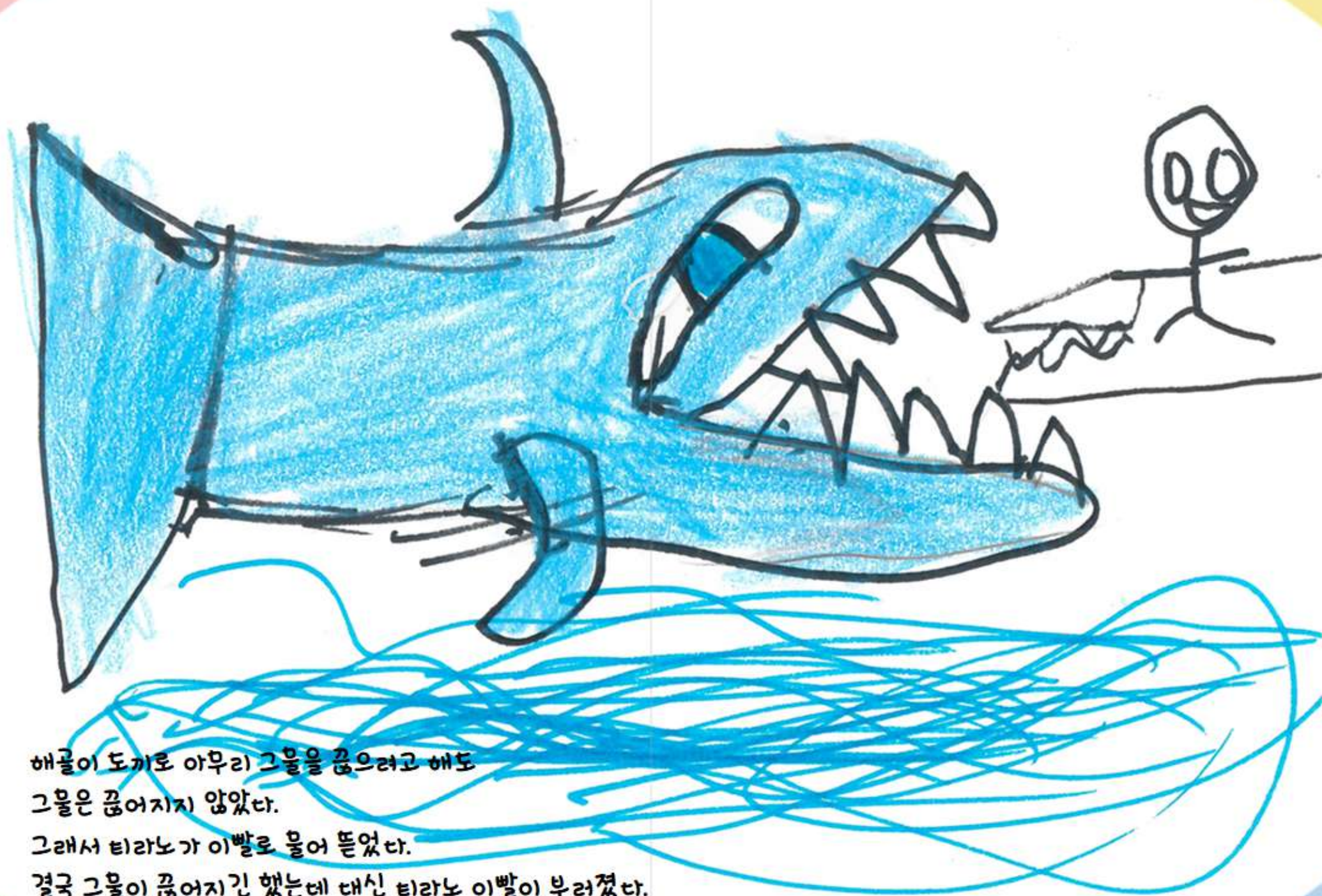
티라노

그 이후로 해골은 티라노를 타고 다녔다.



해골과 티라노는 바다로 여행을 갔는데
모사사우르스가 후크선장의 그물에 걸려 있었다.
그 그물은 한번 걸리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물이었다.





해골이 도끼로 아무리 그물을 끊으려고 해도
그물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티라노가 이빨로 물어 뜯었다.

결국 그물이 끊어지긴 했는데 대신 티라노 이빨이 부러졌다.



"괜찮아?" 해골이 물었다.

"괜찮아. 이빨은 다시 재생돼." 티라노가 대답했다.

해골이 티라노의 부러진 이빨을 해니까 다시 새 이빨이 쏙 났다. 풀려난 모사사우르스가 고맙다고 했다.

티라노가 같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했고, 모사도 좋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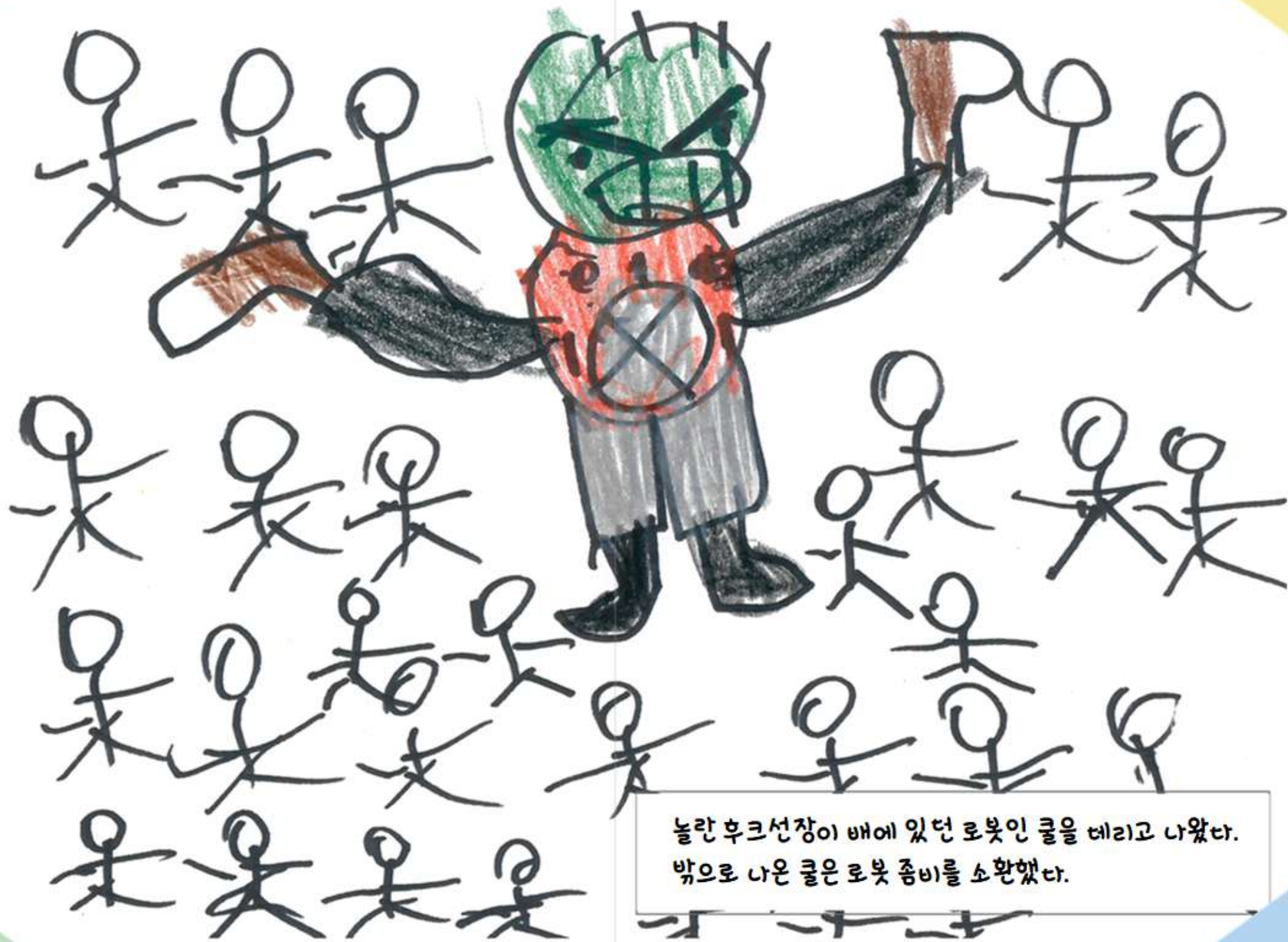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오면서 대포를 쏘다.
그 사람은 바로 후크선장이다.
이 후크선장이 바로 티라노와 모사를 잡아 가두었던 악당이다.



후크선장과 코파코파가 내리고,
 그 부하들이 배에서 내려
 해골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 다가왔다.
 후크선장의 배에는 해골의 엄마, 아빠가 잡혀있었다.
 해골의 엄마, 아빠는
 후크선장 부하들이 위협을 하고 있었다.
 "크크~ 니 친구인 티라노와 모사를 내어주면
 니네 엄마 아빠를 풀어주겠다."
 후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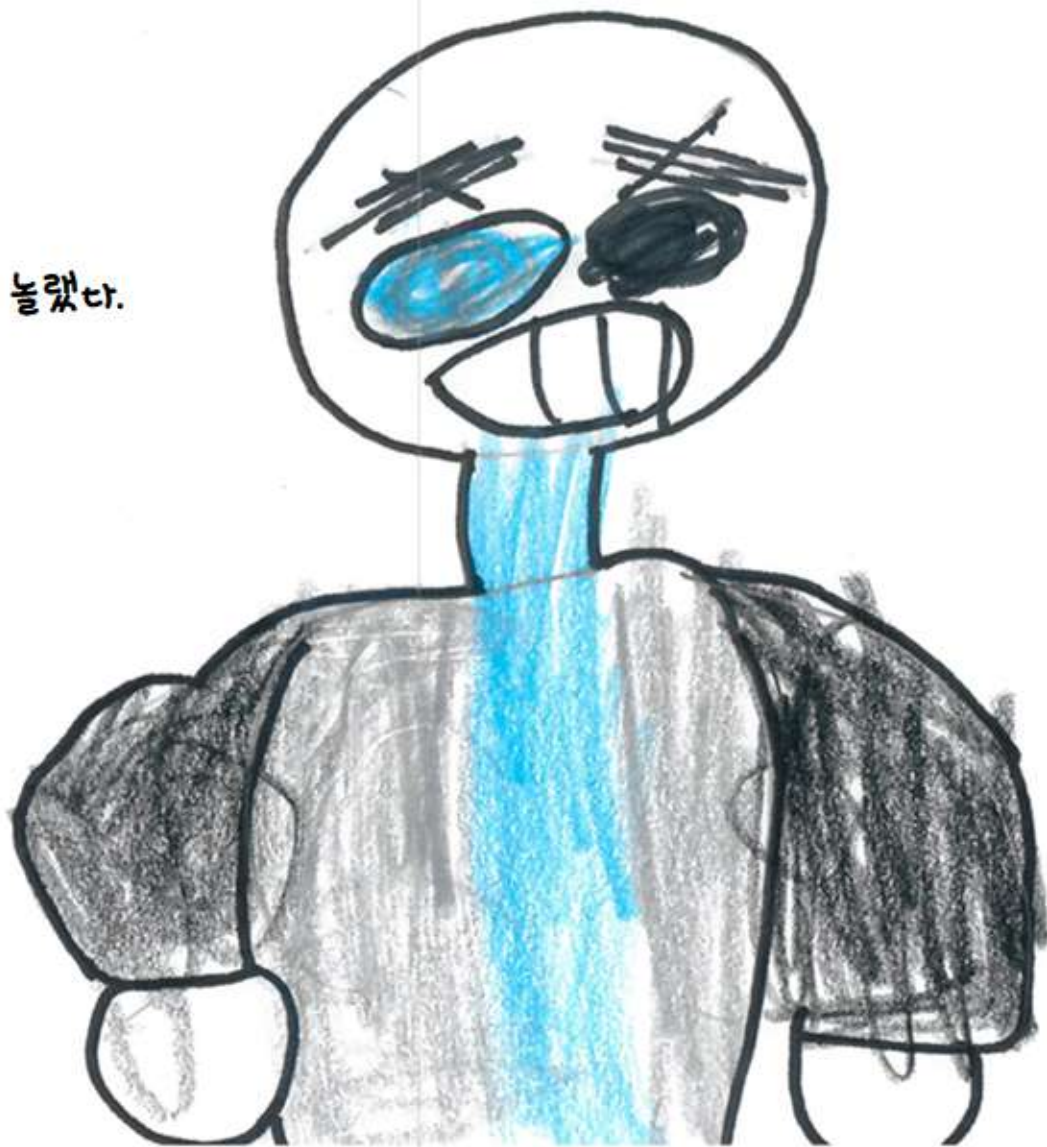
그 말을 들은 해골이
화가 났다.
"내 친구를 감히?"
티라노도 화가 나서
티라노Y로 진화했다.
그것을 본 코파코파와
후크선장이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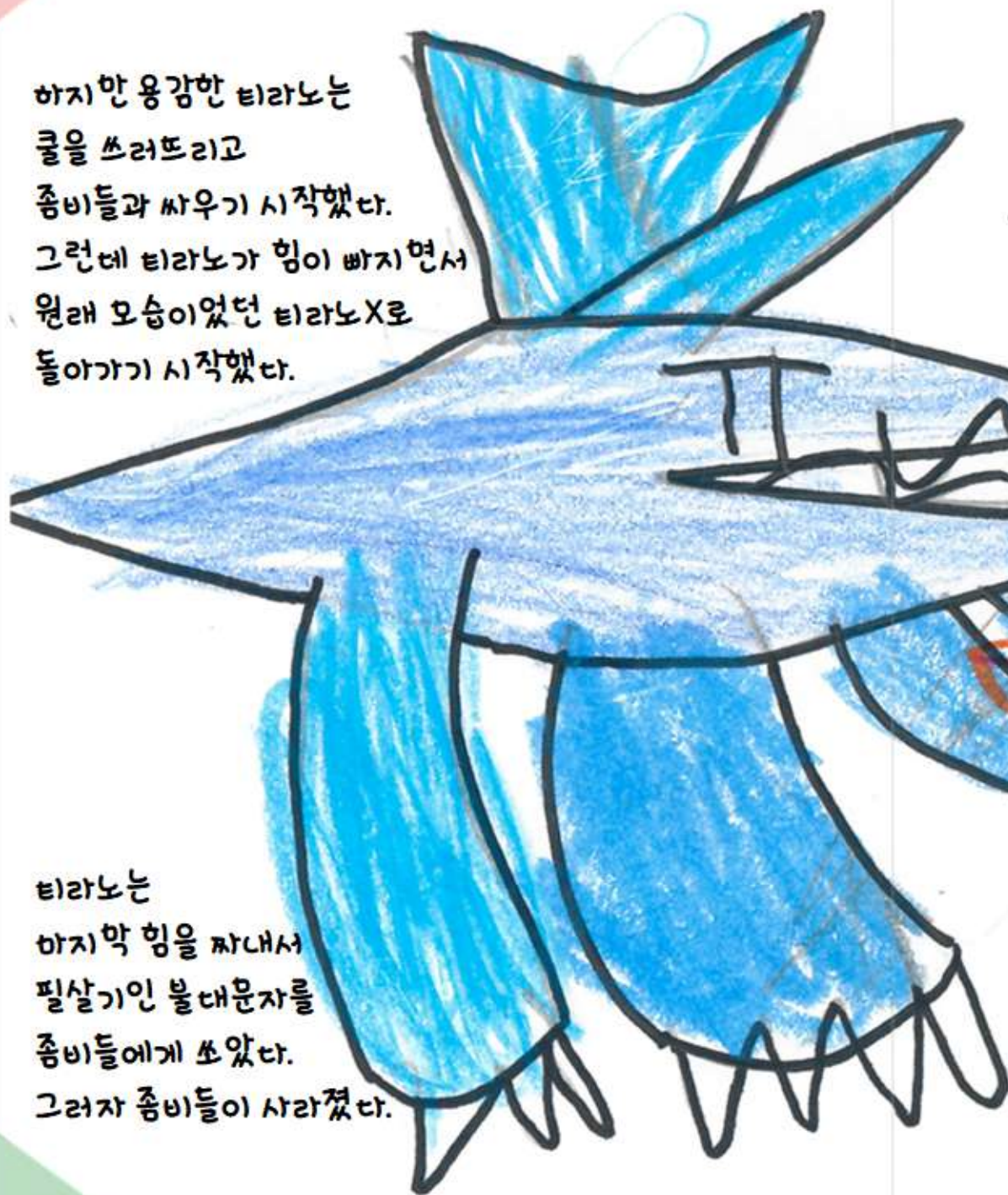
놀란 후크선장이 배에 있던 로봇인 쿨을 데리고 나왔다.
밖으로 나온 쿨은 로봇 좀비를 소환했다.

해골이 쿨과 좀비들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용감한 티라노는
쿨을 쓰러뜨리고
좀비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티라노가 힘이 빠지면서
원래 모습이었던 티라노X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티라노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필살기인 불대문자를
좀비들에게 쏘았다.
그러자 좀비들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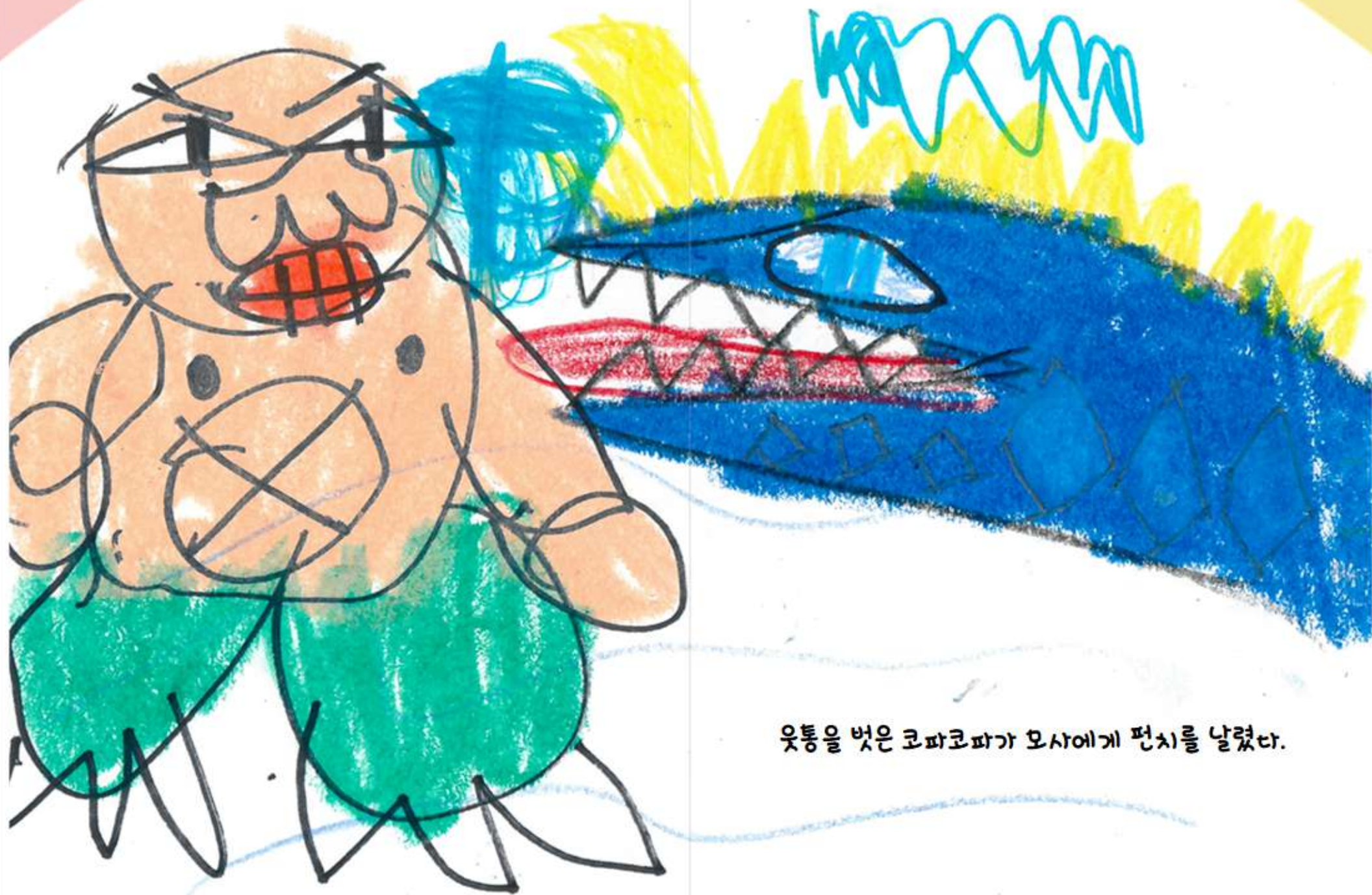


그러던 중 모사는 바다로 들어가서
후크선장의 배를 부수고 있었다.
그래서 후크선장이 몹시 화가 났다.





후크선장이 덤벼려고 하자 모사가 모사Y로 변신을 했다.



웃통을 벗은 코파코파가 모사에게 펀치를 날렸다.



그때 티라노가 화염방산을 쏘서 모사가 펀치를 안 맞았다.
빈틈을 노린 모사가 불 공격으로 코파코파를 공격했다.
공격을 당한 코파코파가 쓰러지고 후크선장은 항복을 했다.

마침내 해골은 엄마, 아빠를 구했다.

"고맙다 애들아" 엄마, 아빠가 말했다.

"근데 애네들은...?" 엄마, 아빠가 물었다.

"아~ 우리 친구들이예요. 티라노와 모사예요."

해골이 대답했다.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사귀게 되어서 좋겠구나"

엄마, 아빠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